

아시아의 기억, 3년간의 만남

엄기호

아직 한번도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느낌표'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도 이제는 '아시아' 가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온 것 같다. 사실 90년대까지 한국에서 '아시아' 는 그저 지리적인 개념이었다. '아시아' 라는 말을 통해서 그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것도 느끼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그 당시는 스리랑카라든가 버마라든가 하는 나라는 '같은 아시아' 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비해 달나라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우리' 와는 별 상관 없는 나라들이었다. 그러다 90년대부터 해외여행이나 이주노동자들의 증가 등을 통해 아시아가 비로소 '사회적인 무게' 를 가지기 시작한 것 같다.

사실 이것은 글을 쓰는 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1999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필리핀에 있는 단체에서 '아시아' 를 이야기하며 일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꽤 진보적인 관점의 사회학을 공부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 당시 나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하나는 '미국이나 영국' 에서 사회학을 계속 공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진보적인 단체의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내가 우연치 않은 기회로 필리핀

에서 팩스 로마나 국제기독교학생운동 아시아 태평양 사무국(Pax Romana IMCS Asia Pacific)이라는 꽤나 긴 이름을 가진 단체의 간사가 되어 아시아를 체험하게 될 줄이야. 이런 점에서 아시아는 나에게 서른살이 넘어서야 실제로 존재하기 시작한 '신대륙'이다.

아시아의 첫 번째 이름은 '부패와 빈곤'이다

이 단체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 적응훈련차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가 보았던 마닐라의 쓰레기 매립지인 바야따스라는 쓰레기산에서 나는 그만 할 말을 잃어버렸다. 거기서 내가 본 것은 '절대 빈곤'이었다. 쓰레기 침전물이 개울을 이루어 흐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수영하고 있는 아이들. 하필이면 내가 갔던 다음 날 폭풍에 쓰레기더미가 무너져 내려 100여 명의 사람이 깔려 죽었다. 그리고 필리핀의 언론들은 빈곤과 빈민들의 처참한 삶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 필리핀에서는 제2차 민중봉기가 일어나 대중들에게 인기는 많았지만 부패한 전직 영화배우 출신의 대통령이 물러나고 수십 년 전 대통령의 딸이었던 현재의 대통령이 '광장'에서 취임하였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 취임한 얼마 후 메이데이 날에 필리핀에서는 부패한 전 대통령을 둘러달라고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누군가는 이것이 진짜 민중봉기라고 하였다. 그리고 누군가는 순진하고 교육받지 않은 빈민들이 전 대통령의 실체를 모르면서 돈과 이미지에 매수되어 난동을 피우는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 당시 어느 신문에 실린 한 빈민의 인터뷰를 잊을 수 없다. 그는 쓰레기산에 살고 있었으며 폭동에 참가했었다. 약간 극적으로 다시 재구성하면 이런 이야기이다. '전 대통령이 부패했다고? 그러는 자기네들은? 웃기지들 말라고 해. 안 썩은 정치인이 필리핀에 있어?

그래도 전 대통령은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랑 같이 손으로 밥을 먹은 최초의 대통령이야. 현 대통령은 겁나서 오지도 못하잖아.’

그것을 보며 나는 ‘위장(胃腸)에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말은 민주주의와 인권은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나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민주주의와 인권은 거짓이라는 말이다. 그만큼이나 민중들의 위장과 동떨어진 민주주의와 인권은 딱 그만큼 위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만의 민주주의요 인권이다. 애초부터 민주주의와 인권은 위장의 소리에서부터 출발해야 정말 민중들과 함께, 민중들 속에서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시아의 두 번째 이름은 ‘정체성의 위기와 그에 의한 폭력’ communal violence이다

인도 구자라트지방에서 일어났던 무슬림과 힌두교도들 간의 충돌에 의한 살인, 강간, 방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일어난 이주자들과 현지 토착종족 간의 살육전. 어디 이뿐인가. 아체며 버마며 종교분규니 인종분규니 하는 말들이 연일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아시아를 ‘설명’ 하고 ‘구성’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저 인종분규, 종교분규가 아니다. 이런 분규들은 정확하게 서구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경험에 맞닿아 있다. 사실 ‘인도’라는 이름은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경험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또 ‘인도네시아’를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코드란 정확하게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는 것’ 하나뿐이다. 근대 사회는 국가가 모든 중요한 통치 권력을 폭력적으로 전유한다. 그러나 ‘인도적인 것’이라는 말은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인도 내의 수많은 차이들 가운데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한 세력의 것이 다른 소수

자들에게 자신들의 것을 강요하면서 기만적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인도네시아의 이해'란 역사적으로 완전히 다른 과정을 밟은 동티모르와 이체 지방에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고 있는 자바 지배자들의 '착취와 억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시아의 인종분규와 종교분규는 이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생소한 것이다. 물리적으로 경계 지워진 '국가'가 모든 권력을 소유함으로써 '가치면 전부요, 못가치면 전무인' 권력을 둘러싼 필사적인 생존 갈등이다. 따라서 'All or Nothing'의 국가권력에 의해 종교·인종·언어가 권력의 지배자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지워져 버린다. 권력 바깥의 소수자들에게 가해질 수밖에 없는 억압과 배제와 착취는 이러한 권력형성 과정의 결과이다.

아시아의 다른 이름은 '아무것도 없음'이다

사실 아시아를 강조하고, 아시아의 의미와 중요함이 요즈음 많이 이야기되지만 사실 아시아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통치하는 사람이건, 저항하는 사람이건 아시아에는 그것이 '기구'이건 '네트워크'이건 '연대'이건 아직까지 아무것도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이다. 유럽이나 북미와 비교해보자. 유럽에는 유럽연합이라는 지역적 정치·통치 '기구'가 존재한다. 그것은 가시적이며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구체적이다. 유럽은 '선언'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산'되고 '집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저항 역시 마찬가지다. 저항 세력 역시 유럽연합의 발전에 맞추어 때로는 '기구'의 형태로, 때로는 네트워크로, 혹은 연대로, 가시적으로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행동한다. 북미에는 나프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시아에는 아무것도 없다. 물론 ASEM이 있고 ASEAN이 있고 그것들이 꿈틀꿈틀 정치

적/사회적인 것'으로 변화해 가고 있지만 아직은 '사회적인 것' 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것'에 가깝다. 이에 따라 아시아 민중들의 네트워크와 연대도 아직은 '사회적인 것' 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의 세 번째 이름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되어야 한다.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그것이 몽상이라고 할지라도 국가권력의 틀을 넘어 그 바깥에서 민중들에 의해 구성되는 네트워크와 연대가 되어야 한다. 물론 아시아에서도 요즘은 ASEAN의 예처럼 지역적 정치 기구들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이를 통해 지역정치가 기구화된다면 민중들의 견제 역시 이를 따라 구체화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권'의 아시아는 지역정치의 출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상상되고 구성될 수 있다. 아마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동아시아에서의 '반전과 평화 운동'일 것이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위기의 고조는 이 지역에 가시적인 정치 기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모든 민중들이 '국가적 이해'를 넘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지역적으로 행동하고 연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사회운동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진다. 반전평화운동의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에서 우리는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우리야말로 다른 동아시아 민중들의 지역적인 연대와 직접행동을 가장 필요로 한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완전한 바닥'에서 출발하여 일반적인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게다가 우리는 다른 아시아 국가를 식민화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견제를 덜 받는 편이다. 따라서 한국의 이런 사회적 경험은 다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훌륭한 참조사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네트워크와 연대를 상상하고 구성하는데 최대의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폐쇄적 민족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가이다. ■

염기호 offroadz@korea.com |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후 우리교육에서 청소년 기획을 담당함. 2001년부터 3년간 Pax Romana International Movement of Catholic Students 아시아 태평양 사무국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는 중이다.